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광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무릇 정길(貞吉),정흥(貞凶)이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오징은 일을 주관한다는 의미에 근본하여 모두 바르게 일을 주관한다고 풀이한다. 그러나 “이(頤)는 바르며 길하다”에 대하여 ‘단전’은 “바름을 기르면 길하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일을 주관한다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 상구가 “기름의 원인이어서 길하다”는 것도이(頤)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기르기 때문에 길하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찌 사육에 가리어 바르지 못한 응의 대상을 길러 그로 하여금 녹위를 도적질하게 하여 흉함을 초래하게 하였는가? ‘상전’에서 “도가 크게 어그러진 것이다”라는 것은 육십이 유사(柔邪)로 바르지 못하고 망령되어 움직여 구하므로 그 도가 상구와 크게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응하는 자리에 있지만 양육을 받지 못하니 이것은 육십만을 위해 경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상구의 총명함을 알 수 있다.

대과(大過)

‘단전(象傳)’, 강한 것이 지나쳤으나 중(中)이다(剛過而中).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은 모두 중(中)이 아니다. 그런데도 ‘강한 것이 지나쳤으나 중(中)이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過)’는 양이 지나치게 강성한 것을 말하고 ‘중(中)’은 자리가 중(中)을 얻은 것을 가리킨다. 일로써 말하면 상(常)을 지나쳤으나 시중을 잃지 않은 경우, 즉 유·순·탕·무의 일이 그것이다. ‘지나쳤으나 중이다’는 것은 시(時) 때문이므로 아래 문장에서 “대과(大過)의 때가 위대하다!”라고 하였다. 상(常)을 지나치면서 시중(中)에 합치하지 않은 것은 패란(恃亂)의 도이다.

‘상전’ 뜻이 나무를 잡고 있는 것이 대과다.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홀로 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에 숨어 살며 번인하지 않는다.

‘못의 물이 나무를 잡고’는 것은 상(常)을 크게 지나친 것이다. 나무가 어찌 움직이겠는가? 우뚝 서 있을 따름이다. 군자가 이것을 보면 많은 약에 하늘에까

지 넘실거릴 때라도 우뚝하게 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무가 못 가운데 잠겨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가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군자가 이것을 본받아 인욕이 넘실거릴 때라도 태연스럽게 세상에 숨어 살며 번민하지 않는다.

감(坎)

습감(習坎)은 믿음이 있어서 오직 마음이 행동하니, 행하면 가상함이 있으리라(習坎, 有孚, 維心亨, 行有尙).

「정전」 「감(坎)은 물이다. 양[一]이 가운데서 시작하여 생성된 것 중 제일 앞선 것이기 때문에 물이 된다.」 즉 주자가 주자에게 “양기(陽氣)의 생성은 반드시 밑에서 시작되니 복(復)괘의 상(象)이 그것이다. 이제 ‘가운데서 시작된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주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기(氣)는 아래로부터 위로 시작된다. 정자의 설은 달리 하나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각각 주장하는 것이 있지만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며, 또 뒤섞여도안 된다. “대강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래로부터 위로 오르는 것’은 기의 사그러짐과 자라남이고, 양(一)이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은 물이 상(象)을 이루는 것이다. 만물이 상을 이룰 때는 물이 제일 앞선다. 양의(兩儀)가 열리면 하늘 하나[天一]인 물이 가운데서 처음으로 생긴 뒤에 불이 생기고 나무·쇠·흙이 생겨 조화가 행해진다. 또 만물의 생성은 모두 물을 시초로 하여 응취(凝聚)하고 자람으로써 그 ‘믿음이 있어서 오직 마음이 행동하니, 행하면 가상함이 있으리라’는 것은 폐체(卦體)로 말하면 가운데는 차고 밖은 비어 있기 때문이다. 가운데가 차 있으므로 믿음이 있고, 밖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운데의 성(誠)이 밖으로 통할 수 있으니 이것이 ‘오직 마음이 행동하다’는 폐체(卦體)로 말하면 가운데는 차고 밖은 비어 있기 때문이다. 가운데가 차 있으므로 믿음이 있고, 밖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운데의 성(誠)이 밖으로 통할 수 있으니 이것이 ‘행하면 가상함이 있다’는 폐상(卦象)으로써 말하면 위아래 두 음이 양쪽 해안의 흙이다. 가운데 포함된 하나의 양이 하늘 하나인 물이다. 물이 땅속

에서 나와 그 흐름이 이어져 끊이지 않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으니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중(中)’으로 풀이해야 한다. 믿음이 있으므로 종이 풀임 없이 유행하여 위수와 적수처럼 졸졸 흐르고 뿔뿔 떨어져 한 잔 되는 작은 양에서 시작하여 황하와 바다에 이르러 하늘에 가득 찰 정도로 커진다. 이것이 형통하고 가만 공이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험난한 가운데 크게 형통한 도리가 있는 것은 오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험난한 가운데 처하여 형통할 수 있고 공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상(象)을 보면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군자가 단사(象辭)를 보면 생각이 반을 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離)

구삼(九三) 날이 기울어지려는데 걸렸으니, 질그릇을 두드리고 노래하지 않으며 아주 높은이의 탄식이어서 흉함이 있을 것이 다(日昃之離, 不鼓缶而歌, 則大耋之嗟).

구삼이 양으로서 양의 자리에 거하고 또 ‘날이 기울어지려는데 걸렸으며’ 강이 지나쳐 중하지 않으니 지혜가 어두운 상이다. 반드시 사생(死生)의 이치를 분명히 알 수 없어 항상 아주 높은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이다. 군자는 직업을 성찰하고 마침을 반성하여 사생의 도리를 앞으로 장수하거나 요절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바른 도리를 순종하고 받아들이어 마치고 다할까 슬퍼하지 않고 온전하게 돌아감을 편안히 여긴다. 자신을 뒤아죽음을 기다리고 천도(天道)를 쫓겨 근심하지 않는 것이 항상 질그릇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의 삶을 즐기는 자이다. 그렇지 않다면 크게 기울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다하게 될 것을 슬퍼하게 될 듯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깊어지고 근심과 슬픔을 마음에 품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치니 이것이 바로 흉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깨달은 사람은 항상 편안히 살며 여유 있게 즐기면서 생을 마감한다. 살아가는 순종하고 죽어서는 편안하며 바른 도리를 얻고 죽으니 흉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특기고 (67회)



고하며, 또 미기(未幾)에 울지문덕의 전승기념으로 싸은(싸은) 「경관景觀」을 양국평화의 장애물이라 하며 그 폐철(毀撤)을 요구하거나, 이에 영류왕도 대경(大驚)하여 당(唐)의 집일 조만간(早晚間)에 필연적으로 사실화될 것으로 깨다랐다(깨달았다)

그러나 북수남진(北守南進:북쪽을 지키고 남쪽으로는 진출하는) 정책은 의구(依舊)히 적화서(적커서) 오히려 남방에 침략을 정지하지않는(않는) 동시에, 국내남녀를 동원하여 북부여(北夫餘, 지금의 흑룡강성)로부터 요동반도(지금의 대련大連)의 남단까지 1천여리(千餘里)의 장역(長域)을 심(심)한지 범(凡:무릇) 60년 만에 맞치니(마치니) 그 공정(工程)과 부역(夫釋)이 전쟁보다 호대(浩大)하여, 남자는 경작하지 못하고 여자는 잠직(蠶織:양잠과 베짜기)하지 못하여 국력이 매우 피폐하게 되었다.

3. 연개소문의 혁명과 대도살(大屠殺)
서기 646년경에 서부의 살이(薩伊) 연태조(淵太祚)가 죽으니 (연)개소문은 살이의 (자)위(位)를 습직(襲職)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소문이 어 정당론(征誼論:당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의론)을 격렬히 주장하였으므로 영류왕과 모든 대신과 호족(豪族)들이 모두 개소문을 평화파인물이라 인정하고 위협시하여 습직을 불허하니, 이는 곧 개소문의 정치성명을 끈(깎)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개소문은 자신(自信)이 확고하여 “내가 많이(아니)면 고구려를 구할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峻) 장군<19>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사람이 없다.”고 자허(自許)하는 인물인 자라, 나는 평소 소 수양이 많은 인물이라 습직의 불허함을 당하고는 곧 4부 살이와 기타 호족의 집으로 도라(돌아)다니면서 말하되, “개소문은 불초(不肖)한 사람인데, 제위대인(諸位大人)께서 대죄(大罪)를 가(加)하시지 않아하시고 겨우 습직권(襲職權)만 삭탈(削奪)하시니 이만하여도 은혜가 지극하다 생각함이다(합니다). 개소문도 오날(오늘)부터 개과(改過)하여 제위대인의 교훈을 좃겼(쫓겠)어오니 바라건대 제위대인은 개소문으로 하여금 부직(父職)을 습(襲)케하였다가 불초한 일이 있으면 면직하옵소서”하니 제(諸)대인이 그말을 애치답게(애치롭게?) 여겨서 서부살이의 직을 설행(擧行)케 하였다.

그러나 서울(당시, 평양성)에 있음은 오히려 불가하다하여 북방으로 쫓아내서 북부여 장역을 삼하는 역에 감독을 명(命)하니, 이에 개소문은 서부 병마(兵馬)를 거나(느)리고 출발할 일자(日字)를 정하였다.

당태종은 고구려의 내정(內情) 탐지하기 위하여 정탐을 보내서, 군대의 다소(多少) 군대배치와 기타 내정을 밀탐하다가 맞잡(마침)내 고구려의 국경경비병에게 체포되었다. 당시 경비하는 장교는 얼얼(烈烈)한 군인일 뿐아니라 항상 개소문을 천신(天神)같이 숭배하는 사람으로 늘 조정(朝廷)이 개소문의 계략을 체납하여 당나라를 치지 않음을 분개(憤慨)하다가, 이에 당나라의 밀정을 잡아 가지고 비밀문서는 모조리 태워 버리고 정탐은 그 얼골(얼굴)에 먹칠로 「寄信殘兒李世民, 今年若不來進貢, 明年當起向罪兵」(명말할 아이 이세민에게 부치니 말이라. 올해 만약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내년, 당연히 그 죄를 물어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로) 항할 것이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대장군연개소문

휘하병졸모서(高句麗大將軍淵蓋蘇文麾下兵卒某書)’라 쓴 후에 정탐을 죽이지 않고 당나라로 보냈다.

당태종이 이를 보고 비상히 분노하여 고구려를 침벌(侵伐)코져 하였으나 유신(儒臣)의 간(諫)함을 좃차 그 사실의 진위(眞僞)를 알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 고구려에 드러 왔다. 영류왕이 이말을 듣고 경비장교를 구인(拘引)하여 심문한 결과, 강개(慷慨)하게 그 경과사실을 자백하였다. 영류왕이 대노하여 직시(즉시) 서부살이 개소문 일인란 제(除)한 외에 각부(各部) 살이와 각부 대신을 소집하고 말하되, “국경경비장교가 당태종을 감히 모욕하였을 뿐아니라 말단에 있는 개소문을 들어서 그 휘하병졸이라 자칭한 것을 보면 불초 군인들이 개소문을 추대코져 하는 것이 명백한 일이고, 또 개소문도 평소 애 정담론으로 군심(軍心)을 선동하여 조정을 반대하고 인심(人心)을 사니, 이제 이틈을 타서 긴급처치 취하지 않으면 후환을 말할 수 없는 즉 즉시 파면하고 사형(死刑)에 처함이 가(可)타.’ 하여 중론이 귀일(歸一)하였다.

그러나 이전 같으면 체포장을 가지고 개소문을 구포(拘捕:구속 체포)할 수 있지만은 금일의 개소문은 서부살이가 되어 대병(大兵)을 장악하고 있을 뿐아니라, 호활(豪闊)한 천성이 체포장을 받지 않고 반항할 것이요, 만일 명황(明況:더구나)도 개소문을 잡으려면 국내에서 1차 소동(騷動)이 일어(일)날것이다. 지금 개소문이 새로 장역군사(長域敘事)의 감독명령을 받아서 출발할 날이 불원하여 미구(未久)에 대왕(영류왕)을 배우(배우)려 올 것이니 반죄(反罪:반역의 죄)를 선고하고 구금하는 것이 가하다결정할 후, 각 대신들이 어전에서 물러나와 비밀히 그날 오기만 고대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論語解說(27)

논어 해설

▣ 權 貞 澤 花山院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7편 술이(述而)

제35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사치하면 불순[不順]해지고 검약[儉約]하면 고루해진다. 공손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색한편이 낫다.”

[원문]

子曰 奢則不遜하고 儉則固니 與其不孫也固固니라.[자왈 사즉불손하고 검격고니 여기불손야영고니라.]

[이해]
지나친 사치나 검약은 모두 중용의 도를 잃는 것이나 사치함이 벗어내는 불손보다는 검약으로 인해 파생되는 인색함이 차라리 견디기 낫다는 뜻이다.

제36장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마음이 평탄하고 느긋으며, 소인은 늘 근심에 차 있다.”

[원문]

子曰 君子其蕩蕩이요 小人其戚戚이니라.[자왈 군자단탕탕이요 소인장척척이니라.]

[이해]
군자는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행하기에 마음이 평온하고 거칠 것이 없으나 소인은 항상 사리사욕의 테두리 속에서 분망[奔忙]하기 때문에 이로운 대로 해로우면 해로우대로 불안이 떠나지 않는 다는 말이다.

제37장

공자[孔子]는 은화하면서도 엄숙하며, 위엄이 있지만 사납지 않으며, 공손하면서 편안하였다.

[원문]

子曰 溫而厲하시며 威而不孟하시며 恭而安이러시디다.[자는 온이러하시며 위이 불맹하시며 공이안이러시디다.]

[이해]
공자의 전체적 품도와 품격에 대한 관찰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제8편 태백(泰伯)

태백편(泰伯篇)은 수물한 장(二十一章)

제1장

공자가 말하였다. “태백이야 말로 그 덕이 지극했던 인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세 차례나 천하를 사양하였음에도 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원문]

子曰 泰伯은 其可謂至德也已矣로다 三以天下讓하되 民無得而稱焉이다.[자왈 태백은 기가위지덕이아이로다 삼이천하양하되 민무득이칭언이다.]

[이해]

주나라 조상 태왕의 장남 태백. 둘째중용, 셋째 계려 중에 셋째인 계려이 현명한 데다 또 뛰어난게 훌륭한 전품을 가진 아들 창을 낳았으므로 후일 반드시 창이 천하의 주권을 잡게 될 것이라 생각한 태백은 의당 자신이 계승할 왕위를 동생 계려에게 무리 없이 양보하여 주나라의 천하를 차지하게될 밑바탕을 닦아 생건의 천하의 삼분지이를 차지 하였던 문 왕 창 의 앞길을 열어주었고 결국 창 의 아들 무왕 발이 은 의 폭군 주를 타도하여 천자가 되었다. 둘째 중용도 형의 큰 뜻을 알아차리고 남쪽 형의 오랑개 땅으로 도망가 버렸다. 공자는 사양하면서도 그 자취를 드러내지 않아 공과(功過)조차 희미해지도록 물러서 태백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고 찬탄한 것이다.

제2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공손하면서 예[禮]가 없으면 고생스럽고 신중하면서 예가 없으면 두려워지고 용맹하면서 예가 없으면 난폭해지고 정지하면서 예가 없으면



박해해진다. 군자가 친척들한테 후하게 굴면 백성들 사이에는 인자한 기풍이 일어나고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원문]

子曰 泰而無禮則驕하고 愼而無禮則隘하고 勇而無禮則亂하고 直而無禮則敝니라 君子篤於親이면 則民興於仁하고 故舊不遺면 則民不偷니라.[자왈 타이무예즉노하고 신이무예즉 사하고 용이무예즉란하고 직이무예즉교니라 군자독어친이면 주민부유니라.]

[이해]

위정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자리에 있는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여 인의를 실천하고 예로서 행위를 일맞게 절제하여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 하라는 말이다.

제3장

증자(曾子)가 병세가 위독해지자 문하의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 발을 펴보고 내손을 펴보아라.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우어 깊은 못가에 서있는 듯하고 얇은 살얼음을 밟는 듯하다’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런 근심을 면하게 되었음을 알겠구나. 예들아.”

[원문]

曾子有疾하심에 召門弟子曰 啓子足하며 啓與手하라 詩云하되 戰戰兢兢하여 如臨深淵하며 如履薄冰이라하니 而今而後에야 吾知免夫라小子여.

예자유질하심에 소문제자왈 계여죽하며 계여수하라 시운하되전전공공하여 여림심연하며 여러박빙이라하니 이금이후에야 오지면부라소자여.]

[이해]

증자(曾子)가 부모가 온전하게 낳아준 몸을 제대로 보호하여 감히 훼손 없이 임종(臨終)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평생 동안 무던히 애썼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체를 손상한다는 것은 곧 부모를 욕되는 일과 같은 행위라는 효의 인식(認識)으로부터 명확한 실천을 위해 증자가 그만큼 충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심보감

▣ 正 嚴 權 燦 彩 (본원 중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治政篇 解說 (2)

● 事君(사군)을 如事親(여사친)하며 事長官(사장관)을 如事兄(여사형)하며 如同僚(여동료)를 如家人(여가인)하며 待羣吏(대군리)를 如奴僕(여노복)하며 愛百姓(애백성)을 如妻子(여처자)하며 處官事(처관사)를 如家事然後(여가사연후)에 能盡吾之心(능진조우之心)이니 如有毫末不至(여유호말부지)면 皆吾心(개오심)에 有所未盡也(유소미진야)니라.

해설: 임금을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는 것과 같이 하며, 윗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는 것과 같이하며, 동료를 대하기를 자기 집 사람 대하듯이 하며, 여러 아전을 대접하기를 자기 집 노복(奴僕)대하듯이 하며, 백성을 사랑하기를 처자 사랑하듯이 하며, 나라 일 처리하기를 내 집안 일 처럼 하고 난 다음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 했다 할 것이니라. 만약 밑받침자라도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내 마음에 다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이니라.

참고: 事→일 사⇒(여기에서는 섬긴다는 뜻. 섬김 사), 僚→동료 료, etto, 群→무리 군, 家人⇒자기 집 사람, 奴僕(노복)⇒자기집 남자 종, 奴→종 노, 남자종 노, 僕→나 복, 종 복, 심부름꾼 복, 然後⇒그런 뒤, 盡→다할 진, 다하다, 毫末(호말)⇒탈끝, 毫→터럭 호, 末→끝 말, 皆→나 개, 不至(부지)⇒이르지 못하다,미흡한 것,有所未盡(유소미진)⇒다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 (혹)이 問簿(문부)는 佐命者也(좌명자야)니 簿數所爲(부속소위)를 令或不從(영혹부종)이면 奈何(내하)닛고 伊川先生(이천선생)이 曰(왈)當以誠意動之(당이성의동지)니라 令與簿不和(令영부불화)는 便是爭私意(면시쟁사 의)요 令(영)은 是邑之長(시읍지장)이니 若能以事父兄之道(약능이사부형지도)로 事之(사지)하여 過則歸己(과즉귀기)하고 善則唯恐不歸於令(선즉유공불귀어령)하여 積此誠意(적차성의)면 豈有不動得人(기유부동득인)이리오.

해설: 어떤 사람이 문기를,“부(簿)는 영(令)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영이 혹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천선생(伊川先生)

生)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진실로서 움직여 할 것이니라. 이제 영과 부가 화목하지 않는 것은 곧 사사로운 생각으로 다투기 때문이다. 영은 고을의 장관이니 만약 부형을 섬기는 도리로 섬겨서 잘못이 있으면 자기에게로 돌리고 잘못 것은 영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와 같은 성의(誠意)를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함이 있으리오?” 라고 하였다.

참고: 이천선생(伊川先生)⇒이름은 이(頤), 명도(明道) 정호(程頤)의 아우이며 북송(北宋)의 유학자이다. 형 명도와 더불어 이정자(二程子)로 불리우며 성리학(性理學)을 일으키는데 공이 큰 유학자임. 簿→거느릴 부⇒[관정의 장(長)을 보좌하는 직위(職位)], 令→부림 영,⇒현령(縣令)을 말할. 佐→도울 좌, 내하(奈何)⇒어떻게 할 것인가? 奈→어찌 내,사의(私意)⇒개인적인 생각. 귀기(歸己)⇒잘못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 伊→저 이, 爭→다들 쟁, 毋→고을을, 歸→돌아갈 귀, 恐→두려움 공, 積→쌓을 적, 毫→어찌 기, 일찍 기.

● 劉安禮(유안례)－問臨民(문림민)한대 明道先生(명도선생)이 曰(왈)使民(사민)으로 各得輸其情(각득수기정)이니라. 問閭吏(문어리)한대 曰正己以格物(알정자기격물)이니라.

해설: 유안례(劉安禮)가 백성을 대하는 도리를 물으니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대답하기를,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뜻을 펴게 할 것이니라.” 아전을 거느리는 도리를 물으니,“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는니라.”고 하였다.

참고: 유안례(劉安禮)의 자는 원소(元素)이며 북송 사람이다. 劉→성 유, 묘 금도 유, 수기정(輸其情)⇒그 뜻을 관청에 전달 하는 것, 輸→실어낼 수, 어리(御使)⇒아전을 통솔하는 것, 御→모실어, 거느릴 어, 吏→관리 리(이), 격물(格物)⇒사물의 도리를 연구하여 극소(極所)에 이르는 것, 格→바를 격, 이를 격, 격식 격.

● 抱朴子(포박자)이 曰 迎斧鉞而正諫



(왕 영부월이정간)하며 據鼎鑊而盡言(거정확이진언)이면 此謂忠臣也(차위충신야)이니라.

해설: 포박자가 말하기를, “도끼로 맞더라도 바른 길로 간(충고)하고, 숲에 넣어서 죽이려 하더라도 옳고 진실한 말을 다하면 이것을 충신(忠臣)이라고 이르느니라.”고 하였다.

참고: 포박자(抱朴子)는 진(晉)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갈홍(葛洪, 호(號)가 포박자이다. 신선술(神仙術)을 즐겨 닦았고, 나라 정치에도 관여했다. 그의 저서(著書)도 그의 호를 따서 포박자라고 이름 하였다.

내외(內外)두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내편에서는 신선술을, 외편에서는 시정(時政)의 득실과 인사(人事)의 선부(善否)를 논하였다. 抱→안을 포, 부월(斧鉞)⇒도끼를 뜻한다. 斧→도끼 부(작은 도끼), 鉞→도끼 월(큰 도끼), 諫→간할 간, 據→옹거할 거, 누를 거, 정확(鼎鑊)⇒가비술의 통정, 鼎→술 정, 鑊→가마 확. - 治政篇 끝 -

이 치정편(治政篇)은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인(政治家)들이 꼭 닦고 읽고 실천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서서 격물(格物)이라는 단어가 나와 내가 대학(大學)－「四書中의 첫 번째 경서」에서 배운 대목을 여기에 쓴다.

● 古之聰明德於天下者(고지옥명덕덕어천하자)는 先治其國(선치기국)하고 欲治其國者(욕치기국자)는 先齊其家(선제기가)하고 欲齊其家者(욕제기가자)는 先修其身(선수기신)하고 欲修其身者(욕수기신자)는 先正其心(정기심)하고 欲正其心者(욕정기심자)는 先誠其意(선성기의)하고 欲誠其意者(욕성기의자)는 先致其知(선치지기)하니 致知(치지)는 在格物(제격물)이니라.

* **해설:** 옛날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집안을 가지런히 바로 잡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바로 잡은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 몸을 닦고자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였으며,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하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정성되고 성실하게 하였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앎에 이르게 하였으니, 앎을 이름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느니라.